교회소식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평화부에서 주관하는 평화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1: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평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고, 강사는 <희망의 친구들> 김미선 상임이사입니다.

단양 유암교회 교인들이 재배한 무농약 마늘(한지형 육쪽마늘, 크기 2.8cm이상)을 주문 받습니다. 3kg 38,000원입니다.

지난 15일은 6.15남북공동선언 16주년이었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시다.

미정

오늘 식당 봉사 : 박영신 백미혜 이경아 김성순 박구병 조순덕 김종락 안정준
다음 주 식당봉사 : 찬양대
오늘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51-5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 (46-50세)
커피 판매 봉사 : 3남선교회
떡 대 접 : 이치림 강상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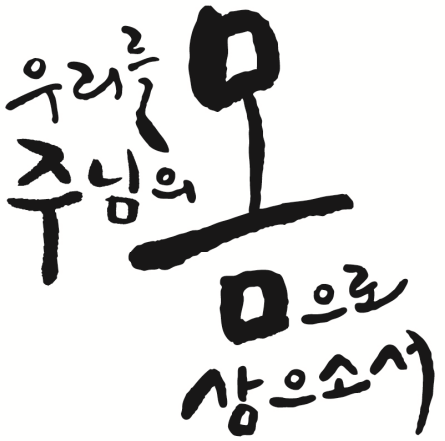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108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강림 후 제 5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7. 사랑의 하나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로움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미세먼지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들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날마다 성숙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기어이 세상에 드러내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차별과 증오가 넘쳐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 도처에서 증오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가진 이들을 관용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려는 이 악한 세대를 고쳐주십시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호12:5,6 ····· 인도자

♠ 교 독 문 ····· 71. 이사야 55장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장영숙 전도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392. 주여 어린 사슴이 ····· 다 함께

♠ 성경봉독 ····· 마 12:38-42 ····· I. 인도자 II. 김문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2부찬 양 ····· 주기도 ····· 찬양대

말 씀 ····· **요나의 표징**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혜경 구명자 김남종 오복선 김명순 이교영 김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종문 지명주 김필순 문금석 박기영 박숙미 박용철 김윤정 박정윤 변재민
이소혜 성지현 송정근 이소선 안현숙 양상철 박재란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윤정득 이봉옥 이순용 김신실 이응석 이은경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재은 이주경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이한림 김명희 이현순 정영례 정현모
조병무 송양진 조영순 주은경 최 숙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한성건 정지혜
한완식 임정자 한훈식 권채영 허호범 박성실 홍순구 안홍숙 무명

감사헌금

권준호 유혜진 김성순 김인하 김해선 박시내 박재영 이현정 박창운 허정윤
신진식 변혜정 안정숙 유영명 박규정 윤정덕 구성실 이경수 김혜인 이부용
이순이 이유일 김미희 이은혜 이인웅 이치림 강상연 임광호 장동열 최윤주
한훈식 권채영 홍윤선 무명12

녹색꿈헌금

김용진 김현동 이미정 이한림 김명희 임선양 신현숙 임설희 무명8

생일감사헌금

김 극 이형석 장원호 박성희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박성희	**청파1속**	김재흥	
안 디 옥	최경미	임정자	**청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이명희	**청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김태정	**청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허정윤	**청파5속**	장영숙	교
에 베 소	백혜숙	김금순	**청파6속**	신진식	회
빌 립 보	곽권희	윤미경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야외	**청파8속**	이범석	
나 사 렛	김경혜	김경혜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마음으로 읽는 글

의자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가 아녔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똬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 이정록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　　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　　양 ……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 4여선교회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 시대에도 요나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길을 되돌리십시오. 그릇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와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세상이 악하고 잘못됐다, 탓할 뿐 참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들려오는 요나의 외침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 외침을 따라 삶을 재편성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별 모임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재흥 목사	안길상 권사	류건형 집사

6월	1부 영접위원	강세기 이소애
	1부 헌금위원	김민화
	2부 영접위원	한완식 조문규 황현성 한성건 진정숙 이오복 이현순
	2부 헌금위원	박홍재 유경순

믿음으로 읽는 글

모기의 도道

뒤통수를 치는 것은 치사한 일이다. … 요즘엔 상대방을 믿게 만들었다가 급작스레 뒤에서 공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능력'으로 취급받는 시절이 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 '예능'조차 '다큐'(다큐멘터리)로 받는 나 같은 사람은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이다. …

> 인류가 지금처럼 타락하기 전, 즉 불가피하여 창검으로 결사하는 수 있더라도 우선 최후통첩을 발하고 선전포고를 한 후에 포문을 열 때, 그 시대까지는 인류 중에 호사자가 있어 소위 비전론非戰論이라는 것을 주창하고, 이로 인하여 전국민의 핍박을 당한 일까지도 있었다. 실로 그 때까지는 인간이 기특한 시대이었다. …
> 절족동물 비충류 쌍시류에 모기라는 동물이 있다. '있다' 하기보다 하절마다 너나없이 모기의 괴로움을 받고 지내서 잘 아는 터이다. 이 동물이 체소體小하고 근력이 약하고 극독이 없음도 우리가 잘 아는 바이다. 그렇다고 작당 군습하는 것도 아니요, 무기라고는 오직 일분장一分長도 못되는 침취針嘴 하나뿐이건만, 그래도 인축人畜을 내습할 때에는 당당히 선전포고하고서 접전한다. … 우리가 모기를 귀찮게 여기나 그러나 그 행동에 일종 경의를 표하게 됨은 근대 국가생활을 하는 인류들보다 매우 정당하고 고결하고 윤리적인 심지를 상실치 않았다고 보는 까닭이다.(김교신 전집1권 203쪽)

한 마디로 근대 국가의 작동방식은 모기만도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글을 읽다보니 수년 전 미국 동부의 작은 해안가 마을 도서관에서 읽은 지역 문인의 '모기 용맹론'이 겹쳐 떠올랐다. … 모기를 "날아다니는 방울뱀"이라고 부르던 타우스 선생님은 모기를 지상에서 가장 용감한 동물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자기보다 만 배는 더 커다란 몸집인 사람을 향해 앵앵 선전포고를 하며 정면 공격을 감행하기 때문이란다. 그것만이 아니다. 모기는 '자신의 먹이를 오직 필요한 만큼'만 먹는 '도리'를 아는 생명체라는 거다.

…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의 피에서 겁쟁이 기질을 뽑아내고, 인간 안에 모기의 용기를 주입하기 위해서"라고 풀이했다는 타우스 할아버지의 해석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근대 국가가 가진 폭력적 작동방식을 한탄하던 두 지성인이 한국과 미국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을 살면서도 같은 교훈을 담아 '모기의 용맹한 무사 정신'을 노래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나!

김교신이 옳았다. 남을 치고 부국강병을 이루려던 근대 국가들은 앞에서는 '평화' '평화' 외치면서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뒤통수를 칠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했으며, 1939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살상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기독인으로서 김교신은 '비전'非戰의 소망을 품은 자다. 그러니 1934년에 쓴 글 '비전론 무용 시대'는 전쟁의 정당함을 논하는 글일 리 없다. 두 세계 대전 '사이'에서, 근대 제국의 작동원리를 간파한 까닭에 그는 우려와 질타를 담아 이 글을 썼으리라.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앞에서는 '전쟁'을 논하지도 밝히지도 않는 시대, 김교신이 그 출발의 시·공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 후반의 시·공을 살고 있다. 비전非戰을 떠나 평화에의 외침이 쉽게 '먹힐' 세상이 아니지만, 국가 사이에만이 아니라 개별화된 무한 경쟁의 전쟁터에서조차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된 이 시절에, 우리는 적어도 궁극의 도는 아닐지언정, 현실적 도로서의 '모기의 무사 정신'은 외쳐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모기보다 못해서야 어찌 얼굴을 들고 살겠는가! 하니 제발 뒤통수는 치지 말자. 그리고 시장에서든 일터에서든(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현실이니 언급해야겠다. '교회에서도'), 제발 좀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폼 나게 장갑은 못 던져도 서로 투명하게, 상대가 알게, 결국 실력대로 정당한 결과를 얻고 패자가 자신의 패배를 납득할 수 있도록….

– 백소영, 「버리지 마라 생명이다」(꽃자리) 중에서